

2024. 1. 4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4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

자연생태과장	한정훈	2133-2140
자연생태기획팀장	장일진	2133-2142
누리집	gil.seoul.go.kr(확인)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7쪽

## '세계인이 걷고 싶은 서울둘레길' 서울시, 둘레길 156km 전면 개편

- 기존 8개 둘레길 개편해 4월부터 '서울둘레길 2.0' 운영... 코스 시설 등 전면 손질
- 누구나 완주할 수 있도록 8개→21개로 코스 세분, 코스당 평균 20km→8km 줄어
- 주요 거점에 하늘숲길 등 볼거리·체험 시설, 완주 시 손목닥터 9988 추가 포인트
- 시 “세계인이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트래킹코스 자리매김하도록 지속 업그레이드”

- '서울둘레길'이 세계인이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트래킹 코스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면 개편한다. 코스당 평균 길이가 20km 수준이어서 쉽게 도전하기 어려웠던 코스를 세분하고 거점 둘레길 4개소에는 숲을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'하늘숲길'과 전망대도 조성한다.
- 또 각 기점에는 눈에 띄는 안내판·스탬프함 등을 설치해 길잡이를 제공하고, 서울시민 건강관리 앱 '손목닥터9988'과 연계하여 완주 시 추가 포인트도 지급할 예정이다. 주요 탐방로 입구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CCTV도 설치된다.

- 서울시는 올봄 시민들이 ‘서울둘레길’ 완주에 부담 없이 도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둘레길을 개편한다고 밝혔다. 시는 이달부터 코스 개편 및 시설을 보완, 오는 4월부터 ‘서울둘레길 2.0’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.
  
- 시는 ‘서울둘레길’은 ‘14년 개통 이후 지난해 12월 1일 ‘6만 번째’ 완주자가 나오는 등 꾸준히 사랑받아 왔으나 둘레길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균 20km의 코스를 세분하고,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.
  - 산·강·마을 길 등 서울 외곽부 구석구석을 잇는 8개 코스, 156.5km(숲길 84.5km, 하천길 32km, 마을길 40km)의 ‘서울둘레길’은 지난 10년 간 서울을 대표하는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해 왔다.
  
- 첫째로, 한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꼬박 잡아야 했던 기존의 8개 코스를 21개 코스로 개편한다.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완주할 수 있게끔 길고 짧은 코스를 다양하게 배치하고 각 기점 21개소에는 지역의 장소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, 둘레길 방향 안내판도 눈에 띄게 변경한다.
  - 8개 코스를 21개 코스로 변경하게 되면 전체 코스의 평균 길이는 8km 정도로, 당초 8시간 정도 잡아야 했던 완주시간을 평균 3시간으로 단축해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  - 또한 통일된 색상과 디자인으로 ‘서울둘레길 안내판’을 정비하고 코

스가 변경되는 기점에는 이용자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종점안내판, 스탬프함, 코스 안내판을 한데 모아 설치한다. 외국인 탐방객을 위해 한글 외에도 영어, 중국어, 일본어도 표기한다.



[서울둘레길 코스 개편]



[21개 시종점부]



[방향안내판 디자인]



[종합안내판]

□ 둘째로, 둘레길 곳곳에 권역별로 특색있고 이색적인 랜드마크 ‘산림 휴양시설’을 조성해 단순히 걷기만 하는 숲길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.

○ 권역별 특성에 맞춰 하늘쉼터, 하늘전망대, 무인휴게소 등 거점형 산림휴양 여가시설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산림 여가 트렌드와 국내외 관광객을 고려해 캠핑시설(숙박·비박)과도 연계하는 한편 다

양한 시선에서 숲을 조망하고 관찰할 수 있게끔 높이 10m 내외의 ‘하늘숲길’도 조성할 계획이다. 또 숲길에서 간단한 간식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무인휴게소도 설치할 예정이다.

〈산림휴양시설 조감도〉



하늘숲길



하늘전망대



전망대

- 셋째로는, 코스 개편에 맞게 서울둘레길 홈페이지와 안내 책자를 전면 개편하여 21개 ‘서울둘레길 코스 상세정보’를 비롯해 프로그램 내용은 물론 주변 여가시설, 관광자원·테마길 등 풍부한 정보를 담아 배포한다. 또 시는 시민 건강관리 앱 ‘손목닥터 9988’과 연계하여 완주 시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.
- 21개 코스 세부 정보와 서울둘레길 가는 길, 주요 지점 설명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, 자연휴양림, 테마길, 전통시장, 박물관, 공연장, 문화재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 또한 꾀한다는 계획이다.
- 안내책자에는 코스 정보뿐 아니라 ‘스탬프북’ 기능을 더해 둘레길 21개 코스에 있는 28개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〈서울둘레길 완주 인증서〉와 함께 기념배지를 받을 수 있어 완주를 위한 동기부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▶ 9988 포인트는 서울둘레길 21개 코스 길이에 따라 코스별 200~500P 차등 지급 예정

- 마지막으로 ‘서울둘레길’로 향하는 43개 지하철역과 20개 버스정류장 어디서든 원하는 코스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안내체계를 도입하고,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‘서울둘레길 로드뷰’ 서비스를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.
- 그동안 가까운 둘레길을 찾거나 지하철역·버스정류장에서 둘레길에 이르는 길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, 지하철역 내부 종합안내판에 ‘서울둘레길’로 향하는 출입구 정보와 안내지도를 설치하는 등 서울 시내 어디서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촘촘한 네트워크 및 안내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.
- 아울러 시민들이 둘레길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탐방로 입구에 ‘지능형 CCTV’를 설치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비상벨을 확대 설치한다.
- 주요 숲길 진입부와 갈림길 등 탐방로 곳곳에 지능형 CCTV·비상벨 설치와 함께 탐방로 주변 가지치기, 불필요한 샛길 폐쇄 등 개선을 통해 안심·안전한 둘레길을 만들어 나간다.
-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“이번 ‘서울둘레길 2.0’ 개편을 통해 서울시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까지도 서울 구석구석 담긴 매력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앞으로 ‘서울둘레길’이 서울을 넘어 세계인이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트래킹 코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코스와 시설을 업그레이드 해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**|Q1| 서울둘레길 2.0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?**

- ◆ 서울둘레길은 2014년 개통 후 서울의 대표 트레킹 코스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있으나, 너무 긴 코스별 길이와 난이도, 부족한 안내체계, 다양한 휴게시설과 여가시설의 부족, 둘레길 주변 역사·인문·관광자원과의 낮은 연계성 등으로 **젊은 세대 등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률이 저조하였음**
  - ※ 둘레길 1개 코스별 평균 길이 : 제주올레길(16.2km), 경기둘레길(14.3km)
  - ※ 서울둘레길 완주자 비율 : 60대 이상(57.4%), 40~50대(35.3%), 20대 이하(7.3%)
- ◆ 변화하는 산림여가 트렌드에 맞춰 단순히 걷기만 하는 트레킹에서 **다양한 산림휴양 여가시설을 도입하여 서울둘레길에서 걷고, 쉬고, 즐기고, 배우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전 연령이 누구나 쉽게 서울둘레길을 찾고, 가벼운 마음으로 산림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서울둘레길 2.0 사업을 추진하게 됨**
  - ※ 8개 코스(평균길이 20km, 8시간 소요) ⇄ 21개 코스(평균길이 8km, 3시간 소요)

**|Q2| 기존 서울둘레길과 2.0의 가장 큰 차이점은?**

- ◆ 우선 기존 서울둘레길 156.5km 8개 코스를 21개 코스로 세분화하여 **코스별 평균 소요시간을 8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시켜 누구나 쉽게 하루 한 코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변경함**
- ◆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둘레길 내 하늘쉼터, 하늘숲길, 하늘전망대, 하늘쉼터, 캠핑장, 무인휴게소 등 **부족한 산림휴양 여가시설과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서울둘레길에서 보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짐**
- ◆ 대중교통(지하철역 43개, 버스정류장 20)에서 **서울둘레길 가는 길과 서울둘레길 코스에 대한 안내체계를 확대**하고, 서울둘레길 탐방 전 포털에서 서울둘레길 코스를 사전 답사할 수 있도록 **서울둘레길 로드뷰 서비스를 제공** 예정임
  - ※ 안내판은 외국인 탐방객을 위해 한글,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표기

### |Q3| 서울둘레길 코스의 난이도는?

- ◆ 서울둘레길은 크게 숲길, 하천길, 마을길로 연결되어 있으며, 수락산과 불암산을 제외하고 모든 코스가 능선을 따라 완만하게 연결되어 대부분 초급자나 중급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함
  - ※ 서울둘레길 홈페이지와 서울둘레길 로드뷰를 통해 코스별의 난이도와 코스 정보 제공 예정

### |Q4| 서울둘레길 완주 시 받는 혜택은?

- ◆ 서울둘레길 156.5km 21개 코스 탐방 시 스탬프 우체통에 있는 코스별 도장을 안내책자 스탬프북에 모두 찍으면 서울둘레길 완주인증서와 함께 기념배지를 제공하고 있으며, 향후 서울둘레길 완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기념품을 개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둘레길 완주에 도전하도록 할 예정임
  - ※ 서울둘레길 완주인증서는 서울둘레길 안내센터(창포원, 매현시민의숲)와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과에서 발급 가능

### |Q5| 서울둘레길 2.0의 추진일정은?

- ◆ 서울둘레길 2.0은 2024년 4월 정식 개편을 목표로 안내체계 개선, 홈페이지·안내지도 개편, 거점휴양시설 조성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고,
- ◆ 우선 2024년 3월말까지 서울둘레길 코스 개편(8개 코스 ▶ 21개 코스)에 따라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서울둘레길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 개편, 로드뷰 서비스 제공하고,
- ◆ 2026년까지 용마산 등 4개소에 하늘숲길(스카이워크), 하늘전망대, 하늘쉼터(비박), 무인휴게소 등 거점 산림휴양시설을 연차별로 조성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임
  - ※ 거점 산림휴양시설(4개소) : 용마산, 호암산, 우면산, 봉산